



한국미술의 탄생

강우방 지음
솔 출판사 펴냄 19만원



어느 미술사가의 편지

강우방 지음
솔 출판사 펴냄 14만원

#새로운 조형언어의 발견
영기(靈氣). 신령스러운 기운이라는 말이다. '영기'라는 단어가 한국미술사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진원지는 강우방 前 이화여대 초빙교수(사진). 강 교수는 고구려고분벽화의 난해한 무늬들을 30년 이상 들여다 보았고 석굴암 부처님을 10년 이상 관찰했다. 수많은 도상에 직접 채색을 해 보며 손과 마음으로 무늬를 이해했고 사찰을 비롯한 수많은 옛 건축물을 살피고 사진 찍으며 문양과 구조와 거기에 깃든 정신을 혼슈했다. 누구보다 실물조사에 정성을 들이고 긴 세월을 바친 강 교수는 조형언어(造形言語)

'영기문'으로 새로 쓰는 미술사

읽기에 남다른 눈(慧眼)을 얻으며 미술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영기다. 강 교수는 '영기'라는 코드로 한국과 아시아 나아가 세계 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것이다. 강 교수가 최근 펴낸 <한국미술의 탄생>은 우리 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역작으로 꼽힌다. 책의 제목에 '탄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부터 눈길을 끈다. 강 교수는 책의 첫머리에서 "이 책의 이름을 '한국미술의 탄생'이라고 한 것은 한국미술의 기원을 선사시대부터 다룬 것이 아니라 한국미술의 참모습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확신하기에 붙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기무늬 연구로써 한국미술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은 비밀

강 교수는 영기무늬의 기원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았다. 벽화를 가득 채운 문양들을 영기문(靈氣文, 신령스런 기운을 표현한 무늬)으로 읽어낸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고분벽화에 비밀처럼 들어와 있던 그 영기문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맥을 이어 오고 있음을 파악했다. 놀랍게도 그 영기문은 불상

의 광배, 사리장엄구, 건축 등에 고르게 적용되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우리의 조형언어였던 것이다.

불상의 광배에 나타나는 문양을 흔히 '화염문(火焰文)' 즉 불꽃문양이라고 일러왔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 높은 위신력을 상징하는 광배에 불꽃이 타오르는 문양이 가득하다는 것. 따져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깊은 통찰 없이 관습적으로 써 온 불꽃문양을 강 교수는 영기문이라는 조형언어로 대체시켰다. 신라의 기와편 등에 새겨진 문양을 '귀면(龜面문양)'이라고 여겨왔지만 '용면(龍面문양)'이라고 주장해 차츰 학계를 수긍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총 27장으로 구성된 <한국미술의 탄생>은 우선 무늬연구의 중요성과 방법들이 소개된다. 무늬는 미술사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생(化生)을 이야기한다. 연화화생 운기화생 영기화생 등의 개념과 동양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고구려고분벽화의 영기문들을 분석하여 그 필연적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다. 사람의 몸에서 발산되는 영기무늬도



이야기하고 각 시대별 주요 유물들이 갖는 영기문의 특징과 의미 등을 살펴며 최종적으로 영기와 영기문을 통해 세계미술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근거를 보여준다.

#날마다 발견하는 새로운 세상

강 교수가 <한국미술의 탄생>과 함께 내놓은 <어느 미술사가의 편지>는 그의 예술론이다. '영기문'이라는 화두를 품고 미술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강 교수의 인식론 문예론 문화비판 감상론 등 매일 매일의 기록이다.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홈페이지(www.kangwoobang.or.kr)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들을 골라 묶은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조차 영기문이라는 틀로 사물을 대하는 강 교수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 설명

불교적 사고 출발점 제시



참불교론

군맹서진 지음
구담 펴냄 1만8000원

우리는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의 참된 이치인 진리를 발견한 부처님의 설법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참불교론>이 나왔다.

서울 서원사 주지 서진 스님이 저술한 <참불교론>은 세 가지 테마가 중심이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스님은 종교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불교적 사고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아낸다.

서진 스님은 "금생에 살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먼저 세우고 열심히 정진하라. 삶에 열정을 실천해 그 인생에 항상 참된 행복이 흐르고 있다면 실패도 좌절도 괴로움도 두렵지 않다"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면 그곳이 바로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이라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설명한다.

강지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하균	불교신문사
2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나	성철	장경각
5	행복한 미소	성철	개미
6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7	마음을 맑게 하는 부처님 말씀 108	해자	휴먼앤북스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내 마음을 치다	윤정화	동승동
10	산사에서 떠나는 풍경소리	정만	운주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38-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저자의 진한 인간애가 곳곳 담겨

삶 속 얽힌 단상들 부드러운 필체로 풀이



그 남자의 연못

정순인 지음
교문사 펴냄 1만원

한국수필문학협회 이사 정순인씨가 부가는 대로 쓴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그 남자의 연못>이다. 이 책은 자연과 삶 속에 얽힌 단상들을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 필체로 잔잔하게 풀어내려했다. 그 속에는 불교적인 정서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 가령 이렇다. 저자에게는 도반이 있다. 함께

절에 다니는 70세 노인이다. 저자와 같이 절에 가면 그 노파를 어머니로 보는 이들이 많을 정도다. 그 도반은 17년전 조카가 태어날 때 병원 도우미로 와서 저자와 인연을 맺었다. 그에 이끌려 암자를 처음 방문하게 됐고, 이후 기도처나 관공지 사찰을 함께 가 108배를 같이 하는 진짜(?) 도반이 됐다.

저자는 그래서 수행도 잘되고 행복하다고 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은 수행의 절반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부처님 말씀을 꺼내 보이며 소중한 인간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책속에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변의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저자의 진한 인간애가 곳곳에 담겨져 있어 부쩍 추워지는 요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 준다. 김주일 기자

남녀노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우화 61편

재치와 해학,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



보는 것마다 당신

이현주 옮기고 씀
산티 펴냄 1만원

인도 어느 마을 한 노인은 날마다 넓은 냇물에 담긴 진흙탕 물을 딱대기로 휘저은 뒤 그 바닥에서 금덩이를 꺼내곤 했다. 하루는 호기심 많은 청년 하나가 어떻게 그런 유물을 부리는지 물었다. 노인이 대답하길, 보통 냇물에 아무데나 있는 진흙을 샘물에 넣어 적다보면 바닥에 묵직한 금덩어리가 묻혀진다고 가르

쳐준다. 청년은 계속 가르쳐준 대로 해보는데 금덩이는 고사하고 손톱만한 금 조각 하나 생길 일 없었다.

청년이 노인에게 다시 물자 그 노인은 "아주 중요한 걸 차에게에 알려주지 않았구려. 물을 휘젓는 동안 절대로 금덩어리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걸세" <본문중에서>

이 책에는 이렇게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우화 61편이 들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재치와 해학,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들로, 동화작가이기도 한 이현주 목사가 찾아낸 우화들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기도문의 틀에 담아 해석해내고 있다. 불교를 좋아하는 이현주 목사의 글들은 명상서적을 읽는 것처럼 읽고 난 뒤 긴 여운이 남는다. 김주일 기자

석불,목불,동불,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금강역사석조물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제현사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모동 1018 번지

청동불상 제작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드로 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